

남북한 정통성 만들기 역사와 비교

조은희(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국문요약

남과 북은 정치권력의 정당성 강화를 위해 서로의 국가정통성을 만들어 강조해 왔다. 남한에서는 3.1운동, 임시정부의 법통성, 민주이념을 강조하였고, 북한에서는 혁명전통과 그 계승을 강조해 왔다.

1948년 남과 북이 각각 건국하는 과정에서 차용한 역사정통성은 '항일'과 관련된 역사였다. 그 중에서 남한의 이승만 정권은 기미 삼일운동의 독립정신의 계승을 강조하였고, 북한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강조한다. 남과 북 공히 초대 지도자로서의 개인의 정통성 강화와 밀접히 연결되어지는 부분이다. 남과 북의 정통성 경쟁은 1950년대 6.25후 본격화 되었다. 이후 남한은 박정희 전두환 정부를 거치면서 조선시대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웠던 역사 및 반일의 역사를 중심으로 여러 문화적 상징물들로 만들어져 강조되었고, 북한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역사만을 정통성으로 인정하고, 여러 문화적 상징물들로 형상화 하였다.

1980년대 중반이후 남한과 북한은 민주화와 후계체제의 공고화 과정을 통해 정통성의 논의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남한에서는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성과 민주화의 이념이 정통성으로 자리 잡았고, 북한에서는 후계자 김정일의 역사가 포함된 '혁명전통'이 정통성으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지난 60년간 남과 북은 분단된 상태에서 각각의 건국을 통해 그 정통성에 대해 강조할 필요가 있었고, 경쟁관계로서 서로의 정통성이 더 우월함을 증명이라도 하듯 경쟁적으로 만들어 강조하였다.

주제어: 정통성, 3.1운동, 민주화, 혁명전통, 계승, 문화적 상징

I. 들어가며

1950년대 한국전쟁과 그에 따른 전후 복구건설에 매진했던 남한과 북한 정권은 정권의 공고화 과정에서 '정통성 확립'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직면하였다. 남한에서는 이승만정권의 부정부패에 항거한 4.19혁명이 발생한 후 이듬해 장면 정부의 무능을 비판한 박정희의 5.16군사쿠데타가 이어지면서 쿠데타의 정당성과 군부 정권의 정통성을 내세울 필요가 제기되었다. 북한에서는 연안파와 소련파 그리고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빨치산파의 갈등으로 인한 숙청의 과정 등을 거치면서 김일성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시킬 문제가 대두되었다.

정권의 정통성을 확립해야 하는 문제는 남북한 모두 당대의 절박한 문제였던 자립 경제와 자주 국방건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다. 그 시기는 남북한이 근대화된 자본주의 국가 혹은 전면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하는 시기였고, 그것은 통치자의 지도력을 바탕으로 사회 분야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권의 역사적 정통성에 대한 국민의 인지와 동의를 바탕으로 정권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야 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은 남과 북 모두 국·내외적인 정세와 중요 정치적 시기마다 강조되고 새롭게 정리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남과 북은 일제 식민지 지배와 해방이라는 특수한 경험을 한 제3세계 피식민지 국가로서 이후 건국의 과정에서 국가와 정권의 정통성 논의에서 독립투쟁과 같은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근간이 된다. 때문에 남한에서는 일제시기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의 활동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 작업을 통해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에서는 일제시기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성시하고 있다. 이러한 남

과 북의 정통성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분단이후 계속되어지고 있으며 국·내외적인 정세와 남북관계의 상황에 따라 강조되고 새롭게 만들어 지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맥락 속에서 지난 60년간 남과 북은 모두 자신들의 정통성을 만들어 서로 경쟁하듯이 강조하였다. 또한 국·내외 정세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그것이 반영되어 변화해 왔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단 후 60년간 남과 북이 각각 강조하고 있는 정통성에 대해 그 내용과 강조점, 변화의 내용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II. 정치권력의 정당화를 위한 국가정통성 만들기

이스턴(Easton)에 의하면 정통성의 원천은 정권이나 그 당국자의 이념적 원칙과의 일치, 정권의 조직과 규범에 대한 애착, 또는 개인적으로 모범적인 도덕성으로 인한 당국에의 헌신 등에서 분출되는 것으로 이것은 이데올로기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¹⁾

때문에 정치권력은 그들의 정통성을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를 적극 활용한다. 구체적으로 정부와 정권을 일체화시키고 구성원 사이의 공통 관심사에 깊은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상징을 사용하여 정부와 정권이 사람들로 하여금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²⁾ 한 정치체제의 정통성은 체제와 대중 간의 통합을 유도해 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데니스(Dennis)는 이러한 정통성의 기능에 다음과 같이 정리하

1) David Easton 지, 이용필 역, 『정치생활의 체계분석』 (서울: 법문사, 1988), pp. 278~303.

2) Howard J. Wechsler 지, 임대희 역, 『비단갈고 주옥같은 정치』 (서울: 고즈윈, 2005), p. 42.

고 있다.

첫째, 정통성은 대중에게 순응할 이유를 제공한다. 정통성은 한 정치 체제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믿음이다. 그러므로 대중이 어떤 통치나 의무에 대해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에 복종할 이유를 제공한다. 정통성이 주장되는 근거에 따라 대중은 무엇이 정당한 행위인지 또는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구별하게 된다. 따라서 정통성은 대중의 자발적인 협력과 순응을 확보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해 대중을 동원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의 동의에 기초한 정통성은 체제의 안정과 효율성을 가져온다. 지도자가 강제력에만 의존한다면 대중의 저항에 직면하고 체제의 안정과 효율성이 떨어진다. 만약 대중이 정치체제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지도자는 통치에 대한 권위를 인정받은 것이며 통치비용도 최소화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통성은 권력을 수용된 명령권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이다.³⁾

셋째, 정통성은 지도자에게 지배를 정당화하고 효과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그들이 공동선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기도 한다. 지도자는 “그들이 소유한 권력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며 보다 큰 집단적인 목표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⁴⁾ 이런 점에서 독재자일지라도 대중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통치를 정당화하려 한다. 대중이 통치행위가 도덕적이며 지도자가 대중의 공통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정치체제의 정통성은 확보된다.

이러한 정통성의 기능은 권력자들로 하여금 정권 초기 적극적으로 권

3) Dennis H. Wrong, *Power: Its Forms, Bases and Uses* (New York: Harper and Row Publishers, 1979), p. 49.

4) Ibid, p. 103.

력의 정통성 만들기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정권의 권력자들은 그들의 정통성을 강화해 줄 수 있는, 즉 대중들이 정권과 소통할 수 있는 ‘기억 가능한’ 역사와 전통을 복원하고 재창조하는 과정을 거쳐 정통성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기억은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는 것이다. 수많은 기억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사회적 기억되고, 이들 중 일정한 선택과정을 통해 역사적 기억으로 나타난다. 기억의 사회적 생산은 공적인 재현과 사적인 기억의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나는데, 역사의 공적인 재현에서는 과거에 대한 여러 해석들의 경합을 통해 지배적인 기억이 나타나고, 특히 과거에 대한 공식적인 재현은 국가와의 관계에서 참여하게 드러나게 되는 측면이 있다. 반면 사적인 기억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기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침묵되지만 사람들의 종속된 또는 사적인 삶의 경험을 반영한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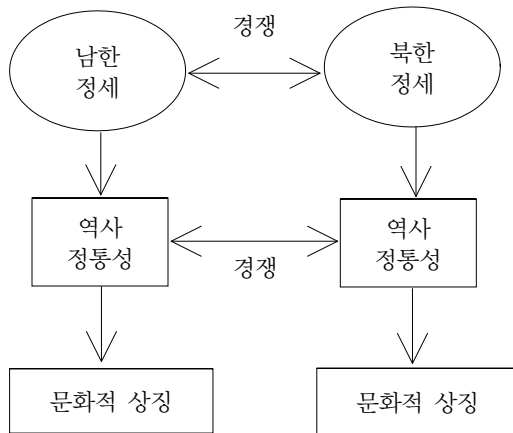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에 대한 단순한 기억과 망각의 작업을 넘어서 기억과 망각의 정치적 투쟁이기도 한 것이다. 기억과 망각을 둘러싼 투쟁에 있어서 지배권력은 과거 사실에 대한 집합적 기억의 왜곡, 조작, 은폐 등을 통해 역사적 정통성을 획득하려고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역사적 진실을 애써 잊어버리게끔 억압적 망각을 강요하기도 한다.⁶⁾ 이에 대해 홉스봄은 근대국가는 만들어지면서 국민적 일체감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해서 역사를 의도적으로 편찬하는데 이것을 기억을 대신해서 전통을 새롭고 더 확신한 기반위에 ‘창출’한다고 보았다.

5) 윤택림, “기억에서 역사로: 구술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들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인류학』, 제25집 (1994), pp. 283~284.

6) 조현연, “왜곡된 기억/망각의 한국현대사와 ‘죽음의 정치’”, 『고대문화』, 제52권 (2000), p. 157.

남과 북은 1948년 정권을 수립해 분단이 고착화 된 이후 현재까지 60년간 보이던 보이지 않던 간에 각각의 체제 유지와 우월성에 대한 경쟁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남과 북의 정통성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남과 북의 국·내외 적인 상황과 함께 남북 간의 경쟁적인 정치관계도 함께 고려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1〉 남-북한 정통성 만들기



〈그림 1〉에서 보여 지는 것과 같이 남과 북은 국가 정통성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남과 북의 경쟁적인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남과 북의 정통성 만들기 과정은 정치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으며 또한 각각의 정통성들도 또한 경쟁하여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남과 북의 정통성 만들기는 국가가 정권의 유지와 강화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수단으로 적극 활용된다. 때문에 정통성의 내용은 국민들의 민족적 감정과 정서를 동원하기 위하여 공통의 경험인 일제시대 또는

조선시대 근대의 가장 화려했던 ‘역사적 기억’을 활용하게 된다. 이 과정은 ‘공적인 기억’ 즉, ‘지배적 기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적인 상황에서 만들어진 정통성은 이데올로기로서 남과 북 정권에서 각각 강조해야 할 ‘역사적 기억’을 활용하여 그것을 구체적인 문화적 상징들로 표현되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교육되어지며 또한 세대를 넘어 전승된다. 즉 이데올로기인 ‘정통성’의 내용이 문화적 상징들로 만들어져 비로소 국민들에게 보여지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상징은 그 기능에 있어 모호성과 다의성을 갖고 있어 하나의 문화적 상징물을 통해 국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적 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많은 내용을 설명할 수 있으며, 또한 변화된 내용도 잘 반영할 수 있다. 때문에 모든 국가들에서는 국가의 변영과 그들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문화적 상징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는 세대를 넘어 전승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체제를 막론하고 정치체제의 유지와 안정을 위해 정권은 역사적 기억과 전통을 활용하여 정통성을 만들어 내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남한과 북한에서 강조하는 정통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남과 북이 경쟁적으로 강조했던 정통성이 시기와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며 강조되는가를 관련 문화적 상징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비교해 보고자 한다.

Ⅲ. 남한의 정통성 만들기 역사와 그 변화:

3.1운동의 독립정신과 민주화

이승만 정권부터 현재의 정권에 이르기 까지 헌법의 전문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3.1운동의 ‘독립정신 계승’과 ‘민족의 단결’을 명시하고 있다. 이

는 우리나라와 같은 식민지 경험이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의 공통적인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제3세계 국가의 민족주의는 민족을 해방하기 위한 이념이면서 민족 구성원에게는 자유와 평등을 위한 이념이며, 독립국가를 형성하고 난 후 민족주의는 지배층을 위한 통치 이데올로기로 활용된다.⁷⁾ 이러한 경향은 정권수립 초기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승만 정권시기 제정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어 국가의 역사적 정통성을 기미년의 삼일운동에 두고 있다. ‘3.1 운동의 독립정신에 대한 계승’은 제정헌법에서부터 1987년 헌법 전문개정 때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역사를 선택하는가는 당시 정치권력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표 1>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1. 이승만 정권

1948년도 제정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은 기미 삼일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한 민주독립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민족의 단결을 강조하고 있다. 이후 이승만 정권은 장기집권의 법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 2~5호까지의 헌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하지만 전문의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은 친일세력을 정치적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었으며 또한 광복 후 임시정부의 정통성 부인 여파는 그 후 전개된 남한의 정치사에서 항일운동의 전통이 역사적으로 평가받지 못하게 되었다. 때

7) Anthony Giddens 저, 김미숙 외 공역, 『현대 사회학』 (서울: 을유문화사, 2004), pp. 422~443.

〈표 1〉 대한민국 헌법 전문 개정

대한민국 헌법	연도	전문
제정헌법 (제1호)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은 기미 삼일운동 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 하여 이제 민주독립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 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도를 수립하여...
헌법제6호 (전문개정)	1962년 12월 26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 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 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헌법제8호 (전문개정)	1972년 12월 27일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이 이념 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헌법제9호 (전문개정)	1980년 10월 27일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 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제5민주공화국의 출발 에 즈음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헌법제10조 (전문개정)	1987년 10월 29일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 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 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하고...

* 대한민국 헌법 전문 중 개정(9차례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발췌 정리.

* 출처: 헌법재판소 역사관 http://www.ccourt.go.kr/home/history/open/60year_01.jsp#

문에 ‘항일’의 역사보다는 그 이전(조선시대)의 역사 및 역사속의 실제 인물의 업적을 복원하였다. 특히 이승만 정권 초기와 한국전쟁시기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이미지를 재생산하였다.

〈표 2〉 제1공화국 시대에 제작된 충무공 기념물

조형형태	제작연도	소재지	기타
동상	1953	경상남도 진해 북원로타리	1952년 4월 13일 제막식
비	1952	전라남도 승주군 신성포 충무사	
동상	1953	경상남도 충무 남망산공원	1953년 6월 1일 건립
동상	1955	부산 용두산공원	1955년 12월 22일 제막
기념탑	1957	경남 거제 옥포	1959년 6월 12일 제막

* 출처: 조은정,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권력과 미술의 관계에 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p. 188. 표를 재구성.

위의 〈표 2〉의 충무공 관련 기념물을 보면 1952년 한국전쟁 중에 건립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충무공의 이미지는 북진통일을 주장하던 이승만 정권이 국민의 보편적인 정서였던 반일감정을 반공이데올로기와 결합시킨 것으로, 당 권력의 취약한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이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⁸⁾

하지만 이승만 정권은 1953년 휴전 이후 이승만 자신의 이상화 작업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병자호란 당시 인조가 향전한 남한산성에 세워진 이승만 송수탑, 3.1만세운동의 기념장소인 탑동공원과 광복의 상징인 남산 조선신궁을 헐고 그 자리에 세운 이승만 동상, 남산 순환도로를 개설하고 정자를 지은 다음 이승만의 호를 따라 명명한 우남정, 용두산 공원을 재개장하며 이름을 바꾼 우남공원 등과 중앙대학교와 대전의 우남도서관

⁸⁾ 또한 이승만 정권기에는 반일감정이 현재성과 직결되는 항일순국의사나 열사를 기리는 활동으로 나타난 것이 드문데, 이는 이승만의 주된 정치적 기반이 친일파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총정공상과 안중근상은 반일주의를 바탕으로 하되 국가공동체의 선을 위해 목숨을 바친 ‘충’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이는 1950년대에 충혼비와 충혼탑 등 전쟁기념 현충물이 과도하게 많이 만들어진 이유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진혜윤, “박정희 정권시기 기념동상에 재현된 이데올로기”(서울대학교 서양화과 미술이론전공 석사학위논문, 2006), p. 35.

〈표 3〉 제1공화국기 대통령 이승만 관계 기념 조형물

종류	제작연도	소재지	기타
이승만대통령 흉상	1954년 9월 18일	서울 교통부 광장	철도창설 55주년 기념
이승만대통령 기념탑	1954년 10월 28일	경기도 파주군 용미리	전통 탑형태 기념탑
대통령 진영	1955년 3월	서울 경무대	3.26 공개, 서양화
대통령리승만 송수탑	1955년 6월 15일 제막식	경기도 남한산성	조형물
우남회관	1955~1961년	서울 세종로 1가 81번지	1955년 기공 1959년 상량, 1961년 준공
동상	1956년 3월 31일	서울 탐동공원	양복착용
동상	1956년 8월 15일	서울 남산	한복착용
우남학관	1958년 11월 16일	배제학교	신축교사를 우남회관으로 명명
우남 송덕관	1959년 9월 15일 준공	서울 독섬	기념전시관
반신상	1959년 9월 15일	서울 독섬 우남송덕관	한복이 배색 반신상
얼굴 좌측면상	1959년 9월 15일 이전	서울 독섬 우남송덕관	석고부조
우남도서관	1958년	대전 중구 대흥동	콘크리트조에 타일장식
운암정	1959년 11월 18일 낙성식	서울 남산	亭子 건축

* 출처: 조은정,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권력과 미술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p. 189. 표를 재구성.

관, 이승만의 모교인 배제학교의 우남학관은 이승만의 이상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보여준다.⁹⁾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1956년 3월과 8월에 서울 탐동공원과 남산에

⁹⁾ 조은정,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권력과 미술의 관계에 대한 연구”, pp. 112~113.

세워진 동상이다. 1956년 3월 1일 삼일절 행사의 일환으로 탑동공원에 이승만 동상이 세워졌으며 그 앞에서 삼일절 기념식이 진행되었다. 헌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남한의 정통성은 삼일운동의 독립정신을 이어 받았으며, 이를 실현하고 있는 사람은 이승만임을 표현한 것이다. 또한 1956년 8월 15일 광복절에는 남산의 조선신궁을 헐고 그 자리에 이승만 동상을 세웠다. 일제를 반대하고 광복을 이루어내 것이 이승만의 업적으로 되었다. 이 외에도 충무공탄신일(4월 28일)에는 용두산에 우남공원 명명식이 진행되었고, 개천절(10월 1일)에는 남산에 이승만 동상의 기공식이 진행되었다.¹⁰⁾ 즉 국가의 중요 기념일마다 이승만 대통령 관련 상징 조형물에 대한 행사가 함께 진행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념동상건립사업은 정권말기로 가면서 개인 우상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1960년 4.19혁명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은 철거되었다.

2. 박정희 정권

박정희 정권은 쿠데타로 들어선 군사정부였기 때문에 정통성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 이승만 정권 시기의 그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국가 주도로 정통성 만들기에 더욱 주력한다. <표 1>을 보면 박정희 정권은 1962년 헌법 전문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고 하여 ‘기미 삼일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한 이승만 정권과는 차이를 강조했다. 또한 5.16 군사쿠데타로 들어선 자신의 정통성을 4.19혁명과 함께 언급하고 있다. 이는 1972년 ‘3.1일동, 4.19의거,

¹⁰⁾ 위의 글, p. 190.

5.16혁명의 이념 계승'으로 그 의미가 격상된다.

박정희 정권은 집권기간 전반에 걸쳐 정권의 정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 이는 쿠데타로 집권한 정권적 한계, 만주군관학교와 일본 육사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박정희 개인의 태생적 한계, 그리고 1960년대 후반부터 분출한 반정권운동과 같은 대내적 요인들을 비롯하여 북한과의 체제경쟁과 같은 여러 가지 대외적 요인들 등, 박정권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등장할 때마다 절실했다. 이러한 양상은 1966년 '애국선열조성건립위원회'의 설립과 1968년 문화공보부의 창설을 계기로 강화되었다.

1960년대 후반은 1967년 이후 북한에서 김일성의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되던 때였고, 1968년 초, 북한의 도발 등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우월성을 입증해야 하는 시기였다. 북한과의 경쟁은 박정희 정권이 정통성 획득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들에 힘을 실어주어 결과적으로 중앙집권체제를 강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이후 1972년 유신체제를 정당화하는 주요한 이념적 수단으로 동원되었다. 때문에 1968년 문화공보부의 창설이후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재조명이 절대적으로 부각되었고, 이때부터 민족문화는 경제발전의 정신적 원동력으로서 경제개발과 동일한 비중으로 개발되었다.

박정권은 1966년 현충사 종합정화를 시작으로 1960년대 말부터 호국선현과 국방유적을 집중적으로 정화하기 시작했다. 이순신장군과 관련된 유적들을 비롯하여 삼국통일의 위업을 기념하는 경주의 통일전, 강감찬장군의 출생지인 서울 낙성대, 임진왜란 시 왜군과 싸우다 순절한 의사의 유해를 모신 금산의 칠백의총, 제주 항몽순의비, 진주성, 남한산성, 해주산성 등 전국의 주요한 호국 국방 유적이 거의 모두 보수, 복원, 정화되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경주고분개발사업은 박정희의 지시로 약 125억 원이 투입,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이루어졌다.¹¹⁾

특히 1966년 발족한 ‘애국선열조상건립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건립된 기념동상은 1968~1972년까지 6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졌다. ‘애국선열조상건립위원회’는 인물선정 시 스펙트럼이 넓게 정권의 목적에 부합하는 역사적 위인들을 골랐다. 동상건립을 시작하던 1968년 북의 도발을 임진왜란과 동일시하며 이를 국가 최대의 위기로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대시기 민족 최대의 위기 상황이었던 일제식민시기 항일운동가에 대한 발굴이 당시 상대적으로 적었다.

‘애국선열조상건립위원회’가 가장 먼저 건립한 동상은 1968년 4월 27일 세종로 충무공동상이다. ‘애국선열조상건립위원회’의 계획대로였다면 동상건립 1호로 세종로에는 세종대왕의 동상이 건립되었어야 했는데 박정희의 지시로 충무공동상이 세워졌다. 박정희는 이 동상건립에 자비를 쾌척하였을 정도로 적극적이었다고 한다.¹²⁾ 때문에 박정희가 가장 존경했던 이순신의 동상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상징성을 가지는 세종로에 건립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 중심에 서 있는 충무공 동상은 국가 권력을 대변하는 상징체로 존재하게 되고, 이를 건립한 박정희는 충무공과 동일한 인물로 입혀지게 된다. 즉 박정희의 지시대로 “일제가 가장 무서워할 인물”로 선별된 충무공은 1968년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로 국가안보의 최대 위기 상황에서 반공이데올로기와 항일이데올로기를 선전함으로써 군사정권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¹³⁾

11) 위의 글, p. 21.

12) 진혜윤, “박정희 정권시기 기념동상에 재현된 이데올로기”, p. 58.

13) 위의 글, p. 89.

〈표 4〉 박정희 정권시기 ‘애국선열조상건립위원회’의 기념동상 건립내용

건립시기	동상	건립위치	이전
1968.4.27	충무공 이순신	세종로	
1968.5.4	세종대왕	덕수궁 중화전 앞	
1968.5.11	유정 사명대사	장충단공원	
1969.8.9	울곡이이	사직공원	
1969.8.16	원효대사	효창공원	
1969.9.23	김유신	시청앞 광장	남산공원(1971)
1969.10.14	을지문덕	제2한강교	어린이대공원(1981)
1970.5.6	정약용	남산시립도서관 앞	
1970.10.4	신사임당	사직공원	
1970.10.12	유관순	남대문 앞 녹지대	장충단공원(1971)
1970.10.16	정몽주	제2한강교 앞 녹지대	
1970.10.20	이 황	남산시립도서관 앞	
1972.5.4	강감찬	수원 팔달산	
1972.5.14	김대건	철두산	
1972.5.23	윤봉길	대전체육관 앞	

* 출처: 조은정,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권력과 미술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p. 84. 표를 재구성.

유홍준이 지적한 대로 군사영웅 신화는 이 시기의 문화재보수와 복원 사업에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¹⁴⁾ 흥미 있는 사실은 민족과 국가의 위기로 보아서는 일본의 식민지배만큼 심각한 시대가 없었지만 이에 대한 독립운동의 유적은 소홀히 다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이 주체적 민족사관의 역사 현장으로서 항일혁명전적—김일성 가계 중심으로 김일성 우상화작업과 관련된 것이지만—이 크게 강조되었던 것과 대조가 된다.¹⁵⁾ 박정희 정권도 민족주체사관이라는 유사한 이념을 표방하

14)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3), p. 164.

15) 이우영,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51-52.

였지만 그것의 역사적 표본은 삼국통일이나 임진왜란 등 보다 먼 과거에서 찾았다.¹⁶⁾

또한 경주고분개발은 한국 역사의 황금시대를 북한이 고구려에서 찾고자 했던 것과 비교된다. 박정희 정권은 신라문화권을 특히 중요시 하였으며, 1980년대 들어서서야 백제문화권과 중원문화권의 개발을 통해 이러한 지역적 편향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가 행해진다.¹⁷⁾ 그리고 1974년 『민족박물관 설립추진계획안』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려했다.

이처럼 박정희 정권기 대규모 문화재 보수정화사업에 집중 투자되었는데, 이는 역사적 영웅과 민족문화의 황금시대를 상징적으로 부각시키는데 집중되었다. 문인보다는 무신, 지역적으로는 경상도, 현대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근대시기보다는 더 오래된 과거, 민중문화보다는 지배 계급의 문화, 지방문화재보다는 국가적 문화재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 이 시기 문화재정책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다. 1970년대 정부가 표방하는 민족문화의 성격은 이러한 선택적인 역사재구성에 의해 표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⁸⁾

3. 전두환 · 노태우 정권

박정희 정권 이후 들어선 전두환 정권은 1980년 10월 헌법의 전문개정을 통해 정권의 정통성에 대해 새롭게 규정한다.(<표 1> 참조) 1987년 민주화 투쟁이후 개정된 헌법에서는 정통성의 논의에서 '민주화'의 이념이

16) 박정희 서거 후 전두환 정권시기에 대규모의 독립기념관이 세워지고 항일유적 복원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한국문화예술킨흥원 엮음, 『문화예술킨흥백서 1981~1985』 (한국문화예술킨흥원, 1985), pp. 113~121, 133~134.

17) 오명석, "1960~70년대의 문화정책과 민족문화담론", 『비교문화연구』, 제4호 (1998), pp. 128~130.

18) 위의 글, p. 131.

국가 정통성의 큰 부분으로 차지하게 되면서 '4.19 민주이념'과 함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이 강조되었다. 또한 '역사적 정통성'에 있어서도 민주화 이전의 정권들이 계승한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 논의에서 제외되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음을 명시하고 있다.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 정권과 유사하게 취약한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여러 노력들을 하였다. 우선 1980년 10월 헌법의 전문개정을 통해 박정희 정권에서 강조했던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 계승'을 삭제하고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만을 계승하였다. 5.16군사쿠데타의 이념을 계승할 경우 군사정권이라는 비난을 씻기 어려운 것은 물론,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짓밟고 들어선 정권이기 때문에 4.19의거에 대한 이념에 대한 논의도 삭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두환 정권은 지난 박정희 정권시기를 '물질적인 고도성장에만 집착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의 침체를 초래' 했었다고 평가하고, 문화시설의 확충을 통해 물질성장과 함께 균형 있는 문화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독립기념관의 착수, 중앙청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개선하는 사업,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원, 국립현대미술관 건립으로 표현되었다.¹⁹⁾

이처럼 전두환 정권에서는 군사정권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문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정권 초기 '스포츠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 만들기와 함께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그중 독립기념관의 건립은 전두환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강조해 나갔다.

전두환 정권은 일제시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수없이 파괴·훼손되었다고 강조하고, 역사현장에 대한 교육장화와 조선왕궁의 복원·정비

19)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역음, 『문화예술진흥백서 1981~1985』, p. 114.

를 대대적으로 시작하였다. 이것은 ‘문화적 주체성’ 확립과 ‘주체사상의 고취’²⁰⁾로 설명되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의 방향은 박정희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그것과 비교해 더 우월함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상 중요 전적지 등의 현장을 복원을 통해 ‘국난극복의 의지를 일깨우는 교육장’으로 활용하려 하였다. 또한 3.1 독립 만세운동 등 항일유적의 현장에 독립기념비를 세우는 작업을 통해 3.1운동의 정통성을 계승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북한과는 다른 ‘주체사상’의 고취를 위해 ‘세종문화상’을 제정하고 경복궁과 창경궁 등 조선왕궁을 본래 모습으로 복원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박정희 정권하에서는 신라의 역사와 유물이 집중적으로 복원되었다고 한다면, 전두환 정권기에는 신라유적과 함께 백제와 중원 유적이 모두 발굴되어 정비되었다. 이 역시 최근의 역사인 일제시대의 항일의 역사 중에서는 3.1운동에 집중하면서 이것보다는 좀 더 오랜 역사에 대한 발굴과 그것의 위대성에 대한 강조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7년 6월 민주화 이후 10월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으로 개정되었다. 1987년 민주화 투쟁을 계기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성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함으로써 이제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항일의 독립정신과 민주화로 규정되었다.

1987년 민주화 투쟁이후 들어선 노태우 정권은 군사정권의 연속이었지만 이전 정권들과는 다른 상황이었다. 즉 민주화 이후 국민들의 의식변화와 변화에 대한 열망은 노태우 정권으로 하여금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때문에 노정권은 5.18민중항쟁에 대한 국가적 기념사업

20) 위의 책, p. 131.

을 표방하였지만 군사정권이라는 제약 때문에 적극적인 시도는 하지 못했다. 즉 노태우 정권은 5.18민중항쟁을 국가기념사업으로 하여 빨리 마무리 짓고 싶었지만²¹⁾, 기념관의 건립은 5.18민중항쟁의 저항적 기억을 마무리 짓기보다 기념관을 통해 계속 재 기억 되면서 전승되어질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계속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²²⁾

4. 김영삼 정권 이후

1987년 민주화 이후 1993년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비로소 ‘임시정부 법통성, 민주이념의 계승’ 논의가 가능해졌다. 김영삼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1993년 4월에 4.19혁명의 기념사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 발표는 4.19혁명에 대한 국가의 긍정적 재평가에 따른 후속조치였지만, 더 이상 저항성이 분출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면도 있었다. 그해 5월에는 5.18민중항쟁의 국가적 기념사업이 재천명되었고, 부산민주항쟁기념관 건립계획이 발표되었다.²³⁾

그중 김영삼 대통령과 관련 깊은 4.19혁명과 관련된 사업과 부산민주항쟁기념관 건립이 가장 추진력 있게 전개되었다. 이렇게 민주화 운동 관련 기념관 건립이 적극적으로 수용된 것에는 정권의 변화로 더 이상 민주화 운동 기념관이 체제에 대한 저항성을 강화하지 않으며 오히려 김영

²¹⁾ 1990년 1월 11일 노태우 대통령과 당시 평민당 총재였던 김대중의 회담이 있었다. 이때 5.18기념관 건립문제가 다시 거론되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상무대에 기념관을 건립하면 광주의 상처와 아픔이 더 연장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감정과 원한이 치유되지 않고 확산되는게 아니냐”라고 하며 기념관 건립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광주일보』, 1990년 1월 12일.

²²⁾ 정호기, “기념관 건립운동의 변화와 동학—민주화운동 기념관들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통권 제65호 (2005), p. 233.

²³⁾ 위의 글, pp. 233~234.

삼 정권의 정통성과 민주성이 부각된다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²⁴⁾

또한 이승만 정권은 4.19민주화 운동으로 무너질 만큼 비민주적 독재 정권, 통일론에서도 북진통일, 무력통일론으로 일관한 정권이었다. 이후 군사정권인 박정희 정권이 걸으려는 7.4공동성명 등을 통해 평화통일을 표방했지만 사실은 무력통일 지향의 정권이었으며, 그 이후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은 통일론에서나 발전 면에서 박정희 정권과 대동소이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승만 정권에서 노태우 정권에 이르기까지 평화통일문제와 민주주의 문제에 모두 넘지 못할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과 비교해 김영삼 정권은 과거의 군사정권과는 달랐기 때문에 문민정권으로서 정통성을 세우는 방법으로 ‘상해임시정부’와 같은 것에 연결하려는 작업을 진행하였다.²⁵⁾ 또한 식민지 잔재 청산문제와 군사정권에 대한 단죄 등, ‘역사바로세우기’운동이 추진되었다.

우선임시정부 선열들의 유해 봉환에 적극적이었고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청사 건물을 옮겨오는 일도 추진하였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 철거를 통해 상징적으로 일재잔재를 청산하려 하였고 민족백과사전에 친일 인사를 기재하려고 하였다. 이처럼 역사바로세우기운동 및 개혁을 통해 비로소 정권의 역사적 정통성을 강조하였고 김영삼 정권의 ‘민주화’이미지를 통해 더욱 부가시키려 하였다.

이후 들어선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은 ‘민주화’와 통일에 대한 노력을 국가 및 정권의 정통성과 연결하였다. 즉 이전 정권과는 차별되게 민주화를 이룬 소위 386세대들이 정권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고, 또한 북한과의 ‘햇볕정책’과 ‘화해·협력정책’ 등을 기반으로 1, 2차 정상회담을

24) 민주화 운동 관련 기념관 건립으로 국한하여 살펴보면, 노태우 정권 이전까지는 기념관 건립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Ibid. p. 235.

25) 강만길, “분단시대의 역사적 정통성”, 『역사비평』, 제3호 (1994), p. 18.

성사시키는 등 분단해소를 위한 노력들이 정통성이 주요 내용이 되었다. 때문에 전향적인 대북정책이 이전 정권들과는 달리 적극 진행 및 추진되었다.

IV. 북한의 정통성 만들기 역사와 그 변화: 항일무장투쟁의 정신(혁명전통)과 그 계승

북한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정부 수립 이후 국가의 정통성을 정립해 나가는데 있어서 일제로부터 독립하고자하는 항일의 혁명전통을 강조하였다. 때문에 북한에서는 정권 수립 초기부터 일제시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²⁶⁾의 역사를 강조하여 복원하였다.

북한에서는 현재 혁명전통은 “우리당과 인민은 일본 놈들과 맞서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싸워 이긴 항일무장투쟁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가지고 있고 이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의 가장 고귀한 무기이다.”²⁷⁾라고 강조한다. 또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형성된 ‘혁명전통’은 또한 수령에 의해 형성되고 발전·풍부화 되어지고, 수령의 후계자에 의해 계승발전되어진다”고 언급하면서²⁸⁾ 항일무장투쟁의 정신이 현재까지도 대를 이

²⁶⁾ 북한에서는 오늘날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첫째, 이 투쟁이 우리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가장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켰으며 일제식민지 기반으로부터의 민족해방의 역사적 위업을 빛나게 하였다. 둘째, 이 투쟁의 행정에서 조선혁명을 앞으로 힘차게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주체적 역량이 튼튼히 꾸러졌다. 셋째, 이 투쟁을 통하여 주체형의 혁명정당의 창건을 위한 조직 사상적 기초가 튼튼히 닦아지고 혁명전통이 확고히 이룩되었다. 넷째, 주체의 기치 밑에 진행되는 혁명의 새로운 길을 밝혀주었으며 반제민족해방운동에서 선구자적 모범을 보여주었다.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략사』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p. 161~163.

²⁷⁾ 극동문제연구소, 『혁명전통강좌—김일성 방송대학 강의안』 (1974), p. 16.

어 계승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북한에서 김일성과 관련된 역사를 ‘혁명전통’으로 복원하기 시작한 것은 1953년 9월,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투쟁전적지로 조사단을 파견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²⁹⁾ 또한 북한에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역사를 ‘혁명전통’으로 공식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1956년부터임을 확인할 수 있다.³⁰⁾

이러한 북한의 ‘혁명전통’은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반응하여 3번의 변화과정을 통해 지금의 내용으로 정리되었다.(<표 5> 참조) 특히 ‘사상과 정신’을 살펴보면, 맑스-레닌주의 → 수령에 의한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 → 주체사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혁명전통의 기원에 있어서도 1967년 이전에는 ‘김일성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 자들로 표현되어 복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후에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선혁명투쟁과정’으로 김일성 개인을 강조하고 있다. 계승 및 발전에서도 1967년 이후인 1970년 『철학사전』에 계승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김정일이 공식적인 후계자로 등장한 1981년 『조선중앙년감』에서 “우리당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 되고있다”, 1984년 『백과전서』 5권에서 ‘당중앙으로 계승’으로 표현이 바뀌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 동지에 의해 계승 발전됨’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는 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조선로동당의 성격규정과 함께 국가 정통성으로 규정되고 있는 ‘혁명전통’의 내용이 변화하여 현재의 내용으로 유지되고 있다.

28) 조선로동당출판사, 『영광스러운 우리당의 혁명전통』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p. 20~27.

29) 『로동신문』, 1953년 9월 3일. “김일성원수 항일 빨치산 투쟁 전적지 조사단 현지로 향발”.

30) 『로동신문』, 1956년 2월 5일. “혁명전통 연구와 전투력강화로 2.8절을 맞는 방선 용사들”.

〈표 5〉 정치시기별 혁명전통의 내용 변화

	내용			기원	계승·발전
	사상과 정신	혁명업적과 투쟁경험	사업작품과 사업방법		
1964년 『대중정치용어사전』 ³¹⁾	공산주의적 혁명정신: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고귀한 혁명업적과 투쟁경험	맑스-레닌주의 원칙성과 혁명적 전개력	항일무장투쟁시기 김일성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	.
『조선중앙년감』1969년 ³²⁾ 1970년 『철학사전』 ³³⁾	수령에 의해 이룩된 사상체계와 투쟁정신: 맑스-레닌주의 원리를 수령이 자기나라 구체적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	혁명적 업적과 투쟁경험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 작품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선혁명투쟁 과정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우리민민의 최대 의무
『조선중앙년감』1981년 ³⁴⁾ 1984년 『백과사전』 5권 ³⁵⁾	주체의 사상체계와 공산주의적 혁명정신: 주체사상	고귀한 혁명업적과 풍부한 투쟁경험	주체사상과 혁명적 군중로선 구현	수령 김일성동지의 항일혁명투쟁 과정	영광스러운 당중앙(우리당)에 의해 견결히 옹호고수·계승발전
2001년 『조선대백과사전』 24권 ³⁶⁾	주체의 사상체계와 공산주의적 혁명정신: 수령의 혁명사상과 유일적 사상체계	불멸의 혁명업적과 고귀한 투쟁경험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	수령 김일성동지의 항일혁명투쟁 과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해 견결히, 옹호고수·계승발전

* 출처: 『조선중앙년감』, 『대중정치용어사전』, 『철학사전』, 『백과사전』 5권, 『조선대백과사전』에서 혁명전통 부분을 발췌하여 정리.

31) 조선로동당출판사, 『대중정치용어사전』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pp. 438~439.
 32)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중앙년감』 (조선로동당출판사, 1969), p. 70.
 33) 사회과학출판사, 『철학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70), pp. 702~703.
 34)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중앙년감』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168.
 3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백과사전』 제5권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 pp. 667~668.
 36)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제24권 (백과사전출판사, 2001), pp. 213~214.

이와 같은 혁명전통의 내용은 지난 60년간 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화·강조되어왔다. 이는 혁명전통의 내용이 확립되고 제도화되어가는 과정이 당내 김일성 정치권력이 강화되는 과정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1. 혁명전통의 확립(1953~1966)

195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김일성은 당내 여러 정치집단들과 공존하면서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 중에 김일성은 연안파와 소련파의 최대실력자, 그리고 박헌영 등 강력한 경쟁자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한 이후 1955년 12월 28일에는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연설에서 “맑스-레닌주의적 진리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배울 것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후 1955년~1956년 소련파와 연안파와의 ‘종파투쟁’을 거치면서 이후 북한에서 ‘혁명전통’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되었고, 이는 곧 그의 정치적 정통성은 물론 국가의 정통성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후 북한에서는 혁명전통이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역사로 독점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주체’, ‘자주’ 등의 단어로 함께 표현되었다. 그리고 당시 혁명전통에 대한 상징은 ‘보천보 전투’라는 역사적 사실과 그 장소에 집중되어졌다. 1955년 6월 4일 보천보에 김일성동상이 세워졌고,³⁷⁾ 8월에는 보천보혁명박물관이 개관되었다.³⁸⁾ 1958년 2월 8일 김일성이 “조

37) 금성청년출판사, 『항일무장투쟁시기 국내 혁명전적지』 (금성청년출판사, 1980), pp. 65~66.

38) 조선로동당출판사, 『량강도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답사기념 수첩』 (조선로동당출판사, 1990), p. 52.

선인민은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이다.”³⁹⁾라는 연설에서 자신이 참가한 항일무장투쟁만을 인민군의 ‘혁명전통’으로 할 것을 선언한 후 1959년 5월부터 『항일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가 출판되었다. 1960년에는 김일성 광장에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로 지어 ‘혁명전통’의 내용으로 다시 재개관하였다.

2. 혁명전통의 제도화기(1967~1979)

1967년 5월 4일부터 8일까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15차 전원회의가 비밀리에 열려 모든 당원과 노동자가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으로 무장하고 전당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 혁명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되었다.⁴⁰⁾

1967년 당중앙위원회 제4기 15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은 갑산파 숙청을 주도하였다. 이후 『조선로동당력사연구실』이 『김일성동지 혁명연구실』로 재편되고 『김일성동지혁명연구실도록』이 편찬되었다. 이로써 김일성 사상으로 규정된 ‘주체사상’이 한층 강조되었으며 주체사상의 시원이 항일무장투쟁(혁명전통)으로 강조되었다.

혁명전통은 김정일이 당의 핵심에 진입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김정일은 전당에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을 확립하고 그것을 널리 활용하여

39) 김일성,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이다.(조선인민군 제324군부대 관하 장병들 앞에서 한 연설 1958년 2월 8일)”, 『김일성 선집』, 제5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번각발행: 학우서방, 1963), pp. 308~349.

40)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1967년 7월 4일 ; 김일성, “당면한 경제사업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며 로동행정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6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67년 7월 3일)”, 『김일성 저작선집』, 제4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599.

혁명전통교양을 강화시킬 실천사항들을 제시하였다. 이것을 “문화예술부문에서 혁명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혁명적 문화예술의 본모기를 창조하고 사상사업에서 전통적인 항일유격대식방법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⁴¹⁾할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시기 빨치산파가 권력의 핵심부분을 독점한 이래 그들의 역사가 복원되어 강조되었고, 이데올로기에서의 ‘독자성’이 추구되었다. 김일성에 의해 영도된 항일무장투쟁의 치적이 더한층 강조되었고, 김일성의 가족들에 대한 혁명 활동이 ‘혁명전통’을 강조하는데 있어 포함되어 ‘혁명가(革命家)’로 강조되었다.

김일성 가족들의 업적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1967년 7월 31일 『로동신문』 제2면 전면에 실린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을 회상한 기사부터이다.⁴²⁾ 또 그녀를 ‘조선의 어머니’로 높여 부르는 노래가 만들어졌으며,⁴³⁾ 1967년 9월 여성동맹의 ‘강반석 여사의 모범을 따라 배울데 대하여’라는 토론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다. 1968년 2월 16일, 김정일의 26세 생일에 『로동신문』은 ‘4천만 조선인민의 마음의 고향’이라는 제목으로 제2면 전면을 활용해 기록영화촬영소가 제작한 천연색의 영화 <만경대>⁴⁴⁾와 <우리의 어머니 강반석 녀사>가 대중에게 소개되었다. 3월에는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을 추모하는 대대적인 행사와 함께 그가 일제 때 활동한 평남강동군 봉화리와 압록강 유역의 중강이 성역화 되었다.⁴⁵⁾ 김일

41) 김정일,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김일성주의학습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자(1973년 11월 5일)”, 『김정일 선집』, 제3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p. 456~457.

42) 채주성, “그분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입니다.—강반석여사를 회상하며”, 『로동신문』, 1967년 7월 31일.

43) “조선의 어머니”, 『로동신문』, 1967년 8월 19일.

44) 『로동신문』, 1968년 2월 16일.

45) 『로동신문』, 1968년 3월 19, 21, 22, 24, 27일.

성의 가족들인 혁명가(革命家)에 대한 강조는 1968년 9월 7일 북한정권 2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식을 통해 김일성의 조부모와 부모까지 확대되었다.⁴⁶⁾

또한 이 시기 가장 중시된 것은 ‘혁명전통’교양이었다. 북한에서는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와 김일성의 문헌들을 기본학습교재로 사용하였다.⁴⁷⁾ 특히 ‘김일성동지혁명사적관’이나 ‘김일성동지 혁명사상 연구실’이 각지에 설치되고 이를 통해 혁명전통 교양이 실시되었다. 또 『로동신문』에는 김일성의 초기 혁명활동에 대한 기사가 연재되고,⁴⁸⁾ 〈김일성 저작선집〉, 김일성과 그 가족의 전기 등의 출판이 차례로 이어졌다.

또한 당시 북한에서는 혁명의 대를 잇기 위해 김일성의 혁명전통에 대한 정확한 인지와 혈통을 가지고 있는 김정일이 후계자로 거론되었다. 또한 당시 김정일은 “새 세대들을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자(1969년 3월 24일),⁴⁹⁾ “청소년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1969년 8월 12일)⁵⁰⁾라는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혁명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백두의 혁명정신⁵¹⁾으로 무장하고 새 세대들을 무장시켜야 한다

46) 『로동신문』, 1968년 9월 8일.

47)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와 혁명전통교양자료들에 대한 학습도 강화하여야 합니다.……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는 오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참된 생활의 교과서로 되고 있습니다. 김정일, “청소년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김정일 선집』, 제1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474.

48) 『로동신문』, 1986년 3월 29일, 4월 5~6일, 4월 8~10일.

49) 김정일, “새 세대들을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자(1969년 3월 24일)”, 『김정일 선집』, 제1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434~440.

50) 김정일, “청소년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1969년 8월 12일)”, 『김정일 선집』, 제1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p. 469~471.

51) ‘백두의 혁명정신’이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조된 혁명정신으로 그 어떤 난관도 맞받고 뚫고 나가는 돌격정신이며 억천만번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싸우는 백철불굴의 투쟁정신이며 자기 손으로 나라를 찾고 사회주의 락원을 세

고 강조하였다.

3. 혁명전통의 계승기(1980~1994)

1980년 10월 10일에 개최된 조선로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김정일은 김일성 다음가는 지위를 가진 후계자임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었다. 주목할 것은 1980년대의 중요한 과제로 ‘혁명전통의 계승발전’을 공식화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혁명전통’은 정치적인 의미가 첨가되어지고 변형되어졌다. 혁명전통이라는 것이 혁명가로서의 가족들의 혁명활동을 포함한 김일성의 항일혁명전통이던 것이 김정일의 혁명활동 내용이 포함되고 혁명전통의 계승성이 강조되었다.

『로동신문』을 비롯한 각종 보도 출판물들은 ‘영광스러운 당중앙’이라는 호칭대신에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982년부터는 그를 찬양하는 전기들이 출판되었다. 이와 함께 그의 저작물들은 본격 출판되어 대중학습으로 사용되었다.

김정일은 1982년 김일성의 70회 생일을 맞아 주체사상탑과 개선문 등 혁명전통에 관한 상징물들을 대거 축조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혁명전통을 계승받은 후계자로서 그것의 발굴과 상징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직접, 대규모로 한다는 것을 보여줘, 후계자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주체사상탑과 개선문의 건설은 김정일의 권력은 혁명전통에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과시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북한에서는 1975년 10월 13일 개관된 대성산 혁명열사

우겠다는 자주의 정신입니다. ...백두의 혁명정신은 혁명의 선배들이 새 세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할 재부 가운데서 가장 귀중하고 값진 재부입니다. 위의 책, p. 436.

름이 개건·확장되었고, 1986년 9월 17일 신미리에 있는 애국열사릉이 개관되었다.⁵²⁾ 혁명열사릉은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시기’ 빨치산 활동을 한 혁명가 약 100여 명이 묻혀있는 곳이며, 애국열사릉은 남조선 혁명가들과 혁명열사릉에 안치하지 못한 항일혁명열사들이 안치되어 있는 곳이다. 항일혁명전통을 계승하지 못한 다른 인사들과 김일성에 대해 반대했던 사람들은 묻히지 못하였다. 이렇게 혁명열사릉과 애국열사릉은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표현한 이시기 대표적인 상징물이 되었다.

또한 이시기 김정일의 출생과 관련된 상징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진다. 1982년 김정일의 생일이 정식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1984년부터 김정일의 백두산 밀영 출생설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어, 1987년 2월 16일 백두산 밀영(고향집)이 일반에 공개되었다. 1988년 11월 15일 백두산 밀영을 내려다보는 봉우리를 정일봉이 이름 붙이고, 정일봉이라는 글자를 새겨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수령 김일성은 1986년 5월 31일 김일성 고급당학교 창립 40주년 기념연설에서 조선로동당에서 ‘수령의 후계자문제’가 빛나게 해결되었음을 강조하였다.⁵³⁾

4. 혁명전통의 유지기(1994~현재)

북한은 ‘혁명전통의 계승기’에 지도부의 세대교체와 제도와 법의 정비를 통해 김정일로의 후계체제를 완성하였고, 김정일의 공식적인 정치활동과, ‘혁명전통’과 관련 이데올로기의 정립을 통해 이를 확인시켜 주었다.

52) 고태우, 『북한사 100장면』 (서울: 가람기획, 1996), pp. 257~260 ; 연합뉴스 엮음, 『북한자료·인명편』 (연합뉴스, 1999).

53) 김일성, “조선로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김일성고급당학교 창립40돐에 즈음하여 집필한 강의를 1986년 5월 31일)”, 『김일성 저작집』, 제40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pp. 100~101.

1997년부터 북한은 주체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주체연호는 김일성이 태어난 해인 1912년부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주체연호의 사용은 항일 혁명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혁명전통’을 창시하고, 그 과정에서 주체사상을 완성해낸 김일성에 의해 즉 그의 혁명투쟁과정인 일생과 함께 북한사회가 존재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혁명전통은 1980년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권력 전이와 함께 혁명전통의 내용도 김정일의 내용이 포함되어 계승되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혁명전통의 내용 또한 변화한 것이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3대 위인’논리와 ‘선군 사상’인 것이다. 혁명전통의 핵심내용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이다. 하지만 1980년 이후 김정일이 공식적인 후계자로 등장하면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역사 뿐 아니라 그의 가족의 혁명역사의 포함과 김정일의 업적이 첨가되어졌다. 그것이 1994년 김일성의 사망이후 실제 권력의 1인자로서 김정일을 강조하기 위한 작업으로 혁명전통이 새롭게 창출되었다. 구체적으로 북한에서는 1994년 이후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3대위인’에 대한 설명과 함께 북한의 정치사에서 중요한 업적과 관련된 부분을 김정일 중심의 업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즉 김정숙은 이전 시기에 김일성에 대한 그녀의 충성심이 강조되었다면, 이후 김정숙에 대한 평가는 “김정일의 낡아 주체혁명의 위대한 계승을 마련한 것”으로 ‘불멸의 업적’을 남긴 것으로 설명되어졌다.⁵⁴⁾

또한 북한에서는 최근 ‘혁명전통=선군전통’임을 설명하면서 혁명전통에서도 항일무장투쟁의 경험과 전통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선군전통이라는 새로운 내용과 개념을 만든 것이 아니라 혁명전통에 대

54) “김정숙 사망 45주년 추모사에서 한 정무원 부총리 최영립의 보고”, 『중앙방송』, 1994년 9월 22일.

한 강조를 김정일 정권하의 북한의 국내외적 상황에 대한 반영과 함께 김정일 정권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여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일성의 혁명전통이었던 것이 이제는 김정일의 혁명전통, 즉 선군전통으로 새롭게 창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결코 새로운 정치사상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니며, 김정일의 정권의 성격에 맞게 상징적으로 새롭게 포장해 낸 것이다.

V. 남북한 정통성 만들기 비교

남한에서의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성, 민주이념, 북한에서의 혁명전통과 그 계승은 국가 정통성으로서 남과 북은 각각의 정권들마다 그들의 정치권력의 정통성 강화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또한 그 내용은 정권이 바뀌거나 정치적 상황이 변화할 때 변화하였고, 강조점 또한 달라졌다. 이처럼 남과 북의 정통성 만들기 역사는 공교롭게도 시기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지난 60년간 남과 북은 분단된 상태에서 각각의 건국을 통해 그 정통성에 대해 강조할 필요가 있었고, 경쟁관계로서 서로의 정통성이 더 우월함을 증명이라도 하듯 경쟁적으로 정통성을 만들어 강조하였음은 물론이다.

〈표 6〉 남북한 정통성 만들기 비교

년대	남한			북한		
		역사정통성	표현		역사정통성	표현
1950	이승만	기미 삼일운동	-총무공 동상 -이승만 동상	확립기	김일성항일 무장투쟁	-김일성 동상 -보천보혁명전적지
1960 -70	박정희	3.1운동 4.19의거 5.16혁명	-민족활용 -애국선열조상건 립위원회, 문화공 보부 -이순신, 세종 -현충사 -경주(신라)	제도화 기	김일성항일 무장투쟁 +혁명가문	-백두산혁명전적지 -혁명가 역사 -고구려
1980	전두환 노태우	3.1운동	-독립기념관 -경복, 창경궁복원 -항일사적비 -국립중앙박물관, 예술의전당, 국립 국악원, 국립미술 관	계승기	김일성항일 무장투쟁 +혁명가 +김정일	-개선문 -주체사상탑 -인민대학습당 -백두산밀영고향집
1990 이후	김영삼 이후	3.1운동 →임시정부 법통성 4.19민주이 념	-민주화운동기념 -임정유해모시기 -총독부건물 철거 -과거청산 (친일, 군사정부)	유지기	혁명전통 계속 유지	-계속유지 -전국성역화

〈표 6〉은 남한과 북한의 정통성 만들기 역사를 비교해 본 것이다. 변화를 설명하는데 있어 정확한 연도구분은 아니지만 남과 북의 정권 변화와 같은 큰 전환의 시기별로 남과 북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경향성은 보여진다.

전체적으로 볼 때 김영삼 정권 이전의 남한의 각 정권들은 정권을 잡은 후 정통성의 논의에 있어서 3.1운동의 독립정신에 대한 계승은 계속해서 강조되지만, 그 외에 이전 정권이 강조하던 이념에 대해 ‘계승’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름’을 강조한 측면이 있다. 이것과 비교해 북한은

정권은 바뀌지 않았고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세습정권이었기 때문에 정통성의 강조에 있어서 ‘계승’ 및 ‘다르지 않음’을 강조한다.

1948년 남과 북이 각각 건국하는 과정에서 차용한 역사정통성은 ‘항일’과 관련된 역사였다. 그중에서 남한의 이승만 정권은 기미 삼일운동의 독립정신의 계승을 강조하였고, 북한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하였음을 강조한다. 남과 북 공히 초대 지도자로서의 개인의 정통성 강화와 밀접히 연결되어지는 부분이다. 하지만 남한에서는 이승만 정권의 건국과정에서 친일파의 청산이 어려웠고 항일 운동한 단체들이 미군정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항일운동의 역사가 강조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때문에 남한에서는 그보다 훨씬 이전의 역사적 인물인 이순신이 조명 받았다. 이 또한 반일에 대한 의미와 함께 충무공 이순신의 이미지, 즉 충성스러운 신하로서의 이순신의 의미가 강조되었다.

북한에서는 건국의 과정에서 여러 공산주의 운동 역사 중에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역사를 선택되었고 김일성의 지도자로서의 정통성 강화를 위해 적극 활용되었다. 남과 북의 정통성 경쟁은 1950년대 6.25 후 본격화 되었다. 전쟁 후 남한에서는 이승만 개인의 동상과 관련 기념물들이 곳곳에 만들어져 세워졌고, 북한에서는 전쟁 후 정치권력이 우세해진 김일성 개인의 동상과 그리고 김일성의 최대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보천보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이 성역화 되었고 1956년 8월 종파사건 이후 더욱 강조되었다. 이후 남한에서는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은 철거 되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헌법의 전문개정을 통해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 이념에 입각해 민주공화국을 설립한다고 강조하였다. 1960년대는 남과 북 모두에 있어서 발전에 대한 열망이 강했었고, 국제적으로도 냉전의 상황에서 남과 북은 경쟁과 갈등이 심해진 상황이었다. 1966년부터 1968년 사이는 남과 북 모두 정통성에 대해 경

쟁적으로 강조하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1950년대 종파사건 이후로 정치적으로는 안정되어있었고, 1967년 갑산과 숙청으로 인해 더욱 공고해 졌다. 하지만 1960년대 국제적인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군사비 지출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남한의 박정희 정권은 초기 경제개발에 주력한 가운데 196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내부의 정치적 상황과 북한의 도발 행위가 있는 후 1968년을 기점으로 정통성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고 북과 경쟁하게 되었다.

1966년 ‘애국선열조상건립위원회’의 설립과 1968년 문화공보부의 창설을 계기로 남한에서는 ‘민족’이 강조되면서 이순신과 세종대왕 등 여러 애국선열들이 동상으로 재현되었고, 현충사 종합정화를 시작으로 유적들을 보수하고 새로 짓기 시작하였다. 이순신의 경우 반일과 반공의 이미지가 중첩된 선현으로서 박정희 대통령의 이미지가 투사된 인물로 강조된 것이다. 또한 경주고분개발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여 북한의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북방유적 발굴에 경쟁·대응의 의미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후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하게 되면서 ‘혁명전통’의 계승성에 대해 대대적으로 강조하였다. 때문에 김정일과 김일성의 공통분모인 ‘백두산’에 집중되었다. 김일성이 후계자로 지목된 이후 김일성의 혁명전통과 관련된 개선문, 주체사상탑과 같은 대규모 건축물들을 축조하고, 백두산 밀영 고향집을 만들어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김일성의 혁명전통을 김정일에 전이하려 노력하였다.

이시기 남한의 전두환 정권은 독립기념관의 건립을 포함해 국립중앙박물관(조선총독부건물의 용도변경),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원, 국립미술관 등 전통을 활용한 ‘문화’와 관련된 대규모 사업들을 벌어나간다. 또한 신라와 백제유적의 복원, 경복궁과 창경궁의 복원, 항일 유적지에 사적비를 세우는 등의 국책사업을 벌여 나가면서 북한과 경쟁하면서 정권의 취약한 정통성을 세우려 노력하였다.

1990년대 중반이후 남과 북은 큰 전환기를 맞는다. 남한에서는 1987년 민주화 투쟁을 계기로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북한에서는 1994년 북핵위기와 김일성의 사망, 경제난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전환의 계기로 남한에서의 김영삼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4.19 혁명과 5.18민중항쟁 등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이 국가주도로 추진하였으며, 임시정부 유해를 중국으로부터 모셔오는 작업을 통해 임시정부에 대한 계승을 강조하였다. 북한에서는 이 전환과 위기의 시기 김정일 정권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시기와는 다르게 ‘혁명전통’의 내용을 바꾸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불안한 시기 변화에 대한 부담을 반영하는 것이며, 김정일이 아무리 김일성의 혁명전통을 이어 받은 후계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의 정통성에 있어서 취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경제난으로 인한 정권의 위기는 이러한 정통성의 ‘유지’전략으로 인해 관리될 수 있었다고 보여 진다.

이렇게 국가정통성은 남과 북의 정권이 변화하거나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내용이 변화하였고 강조되어 부각되어지기도 하였다. 이는 국가정통성이 남한과 북한 모두에 있어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는데 충실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또한 지난 60년간 경쟁해 왔던 남과 북이 서로를 반대하는 논리로 사용되어져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남한과 북한, 국가의 역사적 정통성을 구성하는데 있어 올바른 역사관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것 또한 서로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논리로 작용하였다.

최근 남한에서는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고, 이것과 함께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권과의 차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정통성과 관련된 새로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건강이상설과 함께 후계체제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북한 내부에서도 후계체제에

대한 정통성 확보를 위해 정통성의 논의가 새롭게 진행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0년간 남한과 북한의 경쟁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남한과 북한이 계속해서 자신의 정통성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상대방의 정통성에 대한 비난으로만 일색화된다면 미래의 통일된 한반도를 상정했을 때 남한과 북한의 사회통합에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접수: 2009년 4월 24일 / 수정: 2009년 5월 7일 / 게재확정: 2009년 5월 25일

【참고문헌】

- 강만길. “분단시대의 역사적 정통성”. 『역사비평』, 제3호 (1994).
- 강정구. “김영삼 정권의 민족사적 평가”. 『한국사학회』, 제34집 (2000).
- 고태우. 『북한사 100장면』. 서울: 가람기획, 1996.
- 극동문제연구소. 『혁명전통강좌—김일성 방송대학 강의안』. 1974.
- 근로자사. “혁명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것은 사회정치적 생명이다”. 『근로자』, 제8호 (1973).
- 금성청년출판사. 『항일무장투쟁시기 국내 혁명전적지』. 1980.
- 김일성.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제4차 대회·1961년 9월)”. 『북한 ‘조선로동당’대회 주요 문헌집』. 서울: 돌베개, 1988.
- 김일성. “당면한 경제사업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며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할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6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67년 7월 3일)”. 『김일성 저작선집』, 제4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당선전선동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55년 12월 28일)”. 『김일성 저작선집』, 제4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 김일성.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 경험(김일성고급당학교 창립40돐에 즈음하여 집필한 강의록 1986년 5월 31일)”. 『김일성 저작집』, 제40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 김일성.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이다.(조선인민군 제324군부대 관하 장병들 앞에서 한 연설 1958년 2월 8일)”. 『김일성 선집』, 제5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번각발행: 학우서방, 1963).
- 김정일. “량강도를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튼튼히 꾸리자(량강도 책임일군 및 항일혁명투사들과 한 담화 1968년 7월 21일)”. 『김일성 선집』, 제5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60. (번각발행: 학우서방, 1963).
- 김정일.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사상여독을 뿌리 빼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울 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67년 6월 15일)”. 『김정일 선집』, 제1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정일. “새 세대들을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자(1969년 3월 24일)”. 『김정일 선집』, 제1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86년 7월 15일)”. 『김

- 정일 선집』, 제8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1982년 3월 31일)”. 『김정일 선집』, 제7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김정일.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근로자』, 12호 (1988).
- 김정일. “주체철학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리해를 가질데 대하여(1990년 10월 25일)”. 『근로자』 (1991).
- 김정일. “청소년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1969년 8월 12일)”. 『김정일 선집』, 제1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정일.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김일성주의학습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자(1973년 11월 5일)”. 『김정일 선집』, 제3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 김정일. “혁명적동지애의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시키자(1982년 4월 10일)”. 『김정일 선집』, 제7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백과전서』, 제5권. 1984.
- 데이비드 이스턴. 이용필 역. 『정치생활의 체계분석』. 서울: 법문사, 1988.
- 문학예술출판사. “선군시대와 혁명전통교양”. 『조선 녀성』, 제9호 (2002).
- 문화공보부. 『호국선현의 유적』. 1979.
- 박한용. “한국의 민족주의: 그 신화와 현실”. 『정신문화연구』, 제4호 (1999).
-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제24권. 2001.
- 사회과학출판사. 『철학사전』. 1970.
- 스튜어트 홀, 전효관 · 김수진 외 역. 『모더니티의 미래』. 현실문화연구, 2000.
- 심지연. “대한민국 광복과 임시정부의 정통성”. 『정치외교사논총』, 제14집 (1996).
- 앤서니 기든스, 김미숙 외 공역. 『현대 사회학』. 서울: 을유문화사, 2004.
- 연합뉴스, 『북한자료 · 인명편』. 2000.
- 오명석. “1960~70년대의 문화정책과 민족문화담론”. 『비교문화연구』, 제4호 (1998).
-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3.
- 윤택림. “기억에서 역사로: 구술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들에 대한 고찰”. 『한국 문화인류학』, 제25집 (1993).
- 이우영.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4.
- 임지현. 『민족주의는 반역이다—신화와 허무의 민족주의 담론을 넘어서』. 서울: 소나무, 1999.
- 정영란. “홀로코스트기념관을 통해 본 주제기록관에 관한 연구—집합적 기억의 수

- 집과 수집물의 특성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 정호기. “기념관 건립운동의 변화와 동학—민주화운동 기념관들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통권 제65호 (2005).
- 조선로동당출판사. 『량강도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답사기념 수첩』. 1990.
- 조선로동당출판사. 『영광스러운 우리당의 혁명전통』. 1987.
-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략사』. 1979.
-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략사』. 1991.
-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중앙년감』. 1969.
-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중앙년감』. 1981.
- 조선로동당출판사.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제1권. 2003.
- 조선로동당출판사. 『대중정치용어사전』. 1964.
- 조은정.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권력과 미술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 조현연. “왜곡된 기억/망각의 한국현대사와 ‘죽음의 정치’”. 『고대문화』, 제52권 (2000).
- 진혜윤. “박정희 정권시기 기념동상에 재현된 이데올로기” (서울대학교 서양화와 미술이론전공 석사학위논문, 2006).
- 하워드 웨슬러. 임대희 역. 『비단같이 주옥같은 정치』. 서울: 고즈윈, 2005.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엮음, 『문화예술진흥백서 1981~1985』. 1985.
-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이승만 정권의 권력기반과 성격”. 『한국현대사2』. 서울: 풀빛, 1991.
- 『광주일보』. 1990년 1월 12일.
- 『로동신문』. 1967년 7월 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 『로동신문』. 1967년 8월 19일. “조선의 어머니”.
- 『로동신문』. 1968년 2월 16일.
- 『로동신문』. 1968년 3월 19, 21, 22, 24, 27일.
- 『로동신문』. 1968년 9월 8일.
- 『로동신문』. 1986년 3월 29일, 4월 5~6일, 4월 8~10일.
- 『로동신문』. 1953년 9월 3일. “김일성원수 항일 빨찌산 투쟁 전적지 조사단 현지로 향발”.

『로동신문』. 1956년 2월 5일. “혁명전통 연구와 전투력강화로 2.8절을 맞는 방선용사들”.

『로동신문』. 1967년 7월 31일. 채주성. “그분은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다.—강반석여사를 회상하며”.

『조선일보』. 1956년 4월 18일.

『중앙방송』. 1994년 9월 22일, “김정숙 사망 45주년 추모사에서 한 정무원 부총리 최영림의 보고”.

Dahl, Robert A., *Modern Political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91.

Pye, Lucian, “The Legitimacy Crisis”, in Leonard Binder(et al.), *Crisis and Sequences in Political Develop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Smith, Anthony D., *The Ethnic Origins of Nations*, Basil Blackwell. Oxford, UK: New York, NY, USA, 1986.

Weber, Max(tr. by A. M. Henderson and Talcott Parsons).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Glencoe : Free Press, 1947.

Wrong, Dennis H., *Power: Its Forms, Bases and Uses*. New York: Harper and Row Publishers, 1979.

Abstract

History and comparison of making legitimacy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Cho, Eun-hee(Ewha Institute for Unification Studies)

South Korea and North Korea emphasized a national legitimacy for the justifiability reinforcement of political authority. South Korea emphasized the independent spirit of 3.1 motions of legitimacy. North Korea emphasized 'successions' and 'is not different' because a hereditary political power.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elected the history which relates with 'anti-japan' with national legitimacy. The Rhee Syng Man political power of South Korea emphasized the independent spirit of the 3·1 Independence Movement. And North Korea emphasized the spirit of anti-Japanese armament fight of Kim Il-Song.

The legitimacy competition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was actualized after 6.25 of 1950's. South Korea made The Chosun history of brilliantly glorious history and anti-Japan with cultural symbol. North Korea recognized only the history of anti-Japanese armament fight of Kim Il-Song with traditional characteristic and made with various cultural symbols.

1980's middle after, South Korea and North Korea changed a national legitimacy with democratization respect a succession setup notification. From South Korea the religious tradition result democratization ideology of the Shanghai Provisional Government became national legitimacy. From North Korea historian of successor Kim Jong Il the 'revolutionary tradition'

which is included became national traditional characteristic. Last 60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bout each other legitimacy emphasized from the condition which is divided. Namely South Korea and North Korea emphasized respectively legitimacy more predominate competitively.

Keywords: Legitimacy, 3·1 Independence Movement, Democratization, Revolutionary tradition, Succession, Cultural symbol

조은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최근 주요 논문으로 “북한의 답사행군을 통해 본 혁명전통의 의례만들기”, “북한의 국가기념일을 통한 정권의 정당성 강화”, “북한의 김일성 시대 문화 상징으로서 공간” 등이 있다.